

이상원 | 부전문위원 (제 6117)

- 주요 뉴스: 미국 경제, 高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소비 위축 징후
 - 전세계 이코노미스트들, '2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, 성장률 전망치 하향
 - 독일, 4분기 GDP 역성장하며 여타 유로존 주요국 대비 부진
 - 일본은행(BOJ), 출구전략을 위한 준비 작업(커뮤니케이션 전략) 지속
- 국제금융시장: 전일 기업실적 호조의 여파가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을 상쇄

주가 상승[+2.4%], 달러화 약보합[-0.04%], 금리 하락[-3bp]

 - 주가: S&P500은 PCE 부진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기업실적이 재조명 받으며 상승 반전
유로 Stoxx600지수는 독일 4분기 GDP 역성장, 우크라이나 우려로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경기둔화 우려에 의한 금리하락 여파로 소폭 약세 조정
유로화는 0.05% 강세, 엔화는 0.10% 강세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. 펀더멘털보다는 월말 수급요인이 더 크게 작용
독일 금리는 다음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매파적 메시지에 대한 기대로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 환율(1210.9원, +4.4원) 0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/28일	1/27일	전일대비			1/28일	1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31.9	4,326.5	2.43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7%	1.80%	-3bp
	유럽	465.55	470.33	-1.02%		독일	-0.05%	-0.06%	1bp
	중국	3,361.4	3,394.2	-0.97%	CDS 5y	한국	25bp	25bp	0bp
	일본	26,717	26,170	2.09%		중국	51bp	50bp	1bp
	한국	2,663.3	2,614.5	1.87%	위험 지표	EMBI+	-	416bp	-
환율	달러지수	97.22	97.26	-0.04%		VIX	27.66	30.49	-9.28%
	유로화	1.1151	1.1145	0.05%		WTI유	86.82	86.61	0.24%
	엔화	115.26	115.37	0.10%	원자재	구리	431	442.35	-2.57%
	위안화	6.3612	6.3682	0.11%		금	1,791.5	1,797.4	-0.33%
	원화	1,205.5	1,202.8	-0.2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경제, 高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소비 위축 징후

-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, '21.12월 개인소비지출(PCE)은 0.6% 감소_{mom}, PCE 물가는 5.8%_{yoy} 상승(근원은 +4.9%_{yoy}), 개인소득은 0.3%_{mom} 증가했다고 발표. 미시건대가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7.2로 '11.11월 이후 최저치 기록
- Oxford Economics는 1분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호라고 평가. 반면, BMO Capital Markets는 노동시장 개선과 임금 상승이 소득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'22년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
- 한편, Surveys of Consumers는 소비자들이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일부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전세계 이코노미스트들, '2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, 성장률 전망치 하향

- Reuters가 전세계 500여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1월(4~26일) 중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, 응답 대상국(46개) 대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,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('21.10월 +4.5% → '22.1월 +4.3%)
- '22년 세계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, 응답자의 40%는 '인플레이션', 35%는 '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', 22%는 '중앙은행들의 너무 빠른 움직임'을 지목

■ 독일, 4분기 GDP 역성장하며 여타 유로존 주요국 대비 부진

- 독일 : 연방통계청(Destatis), 4분기 GDP가 코로나19 4차 파동 및 예방조치 강화에 의해 0.7%_{qoq} 감소했다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발표
- 프랑스 : 국립통계연구소(INSEE), 4분기 GDP가 전 부문에 걸쳐 고르게 성장하면서 0.7%_{qoq} 증가했고 '21년 연간 성장률(+7.0%)은 5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

■ 일본은행(BOJ), 출구전략을 위한 준비 작업(커뮤니케이션 전략) 지속

- 구로다 총재, 현 단계에서 BOJ가 목표 금리를 올리거나 수익률곡선을 세우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시기상조이나, 향후 2% 인플레이션을 달성해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가 온다면 목표 장기금리(現 10년물)의 만기를 단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

■ 중국 정부, 외국계 금융권 대상으로 성장둔화 우려 진화 움직임

- 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, 주요 외국계 은행 및 자산운용사와의 회의를 주재해, 규제 강화 이후 성장둔화 우려에 처해 있는 중국 정부의 상황에 대해 설명. 익명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은 당대회도 예정되어 있어 '21년과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

■ 인도 중앙은행(RBI),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추세 속 경기부양 의지 강조

- 파트라 부총재,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('21.12월 +5.6%)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,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안에 유지되면서도 인도 경제가 활기를 되찾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성장 지원 의지를 강조

■ 태국 정부, 오미크론 변이 확산 불구 기존의 성장을 전망치 유지

- 재무부, '21년 GDP 성장률은 당초 추정치(+1.0%)보다 높은 +1.2%로 상향 조정하고 '22년 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+4.0%를 유지. 오미크론이 아직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수와 관광이 올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
■ 콜롬비아, 정책금리 19년래 최대 폭 인상

- 중앙은행, 벤치마크 금리를 3.0% → 4.0%로 100bp 인상('03.4월 이후 최대 인상 폭). 성명서를 통해, '21년의 고 인플레이션(+5.6%)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진 한편, 더 이상 코로나 위기 때 수준의 경기부양이 필요치 않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28일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1.12월 개인소비(전월비): -0.6%, 11월(+0.4%), 예상치(-0.6%)
- 미국 '21.12월 개인소득(전월비): +0.3%, 11월(+0.5%), 예상치(+0.5%)
- 미국 '22.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: 67.2, '21.12월(68.8), 예상치(68.8)
- 독일 '21.4분기 GDP(전분기비): -0.7%, 3분기(+1.7%), 예상치(-0.3%)
- 프랑스 '21.4분기 GDP(전분기비): +0.7%, 3분기(+3.1%), 예상치(+0.5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31일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'21.4분기 국내총생산(GDP), 일본 '21.12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, 독일·스페인 '22.1월 소비자물가(CPI) 등 경제지표 발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